

- 하계수련회말씀‘와 보라’-

대만 순회사 주진정

2010.7.23

(금요일 교회 자체적으로 ‘월명동 및 선생님과 주님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천국성령운동 집회를 가졌습니다. 다 같이 ‘자연성전’이란 곡을 부르는데 갑자기 ‘더 나은 본향’이란 음성이 들려와 이 성경구절을 찾아 펼쳐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13~16)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후에 기도하며 주님께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성경구절입니까?”하고 여쭙니

이에 주님께서 “이는 내가 계속 나에게 ‘올해 여름 수련회 때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하고 나에게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지금 내가 주는 이 계시의 성경본문’으로 너에게 준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 “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 예수님의 말씀 *

주 예수 그리스도 “ 와 보라. 나의 신부들아. 와 보라.

이는 내가 펴는 신부급 역사요, 나의 섭리역사요, 내가 깊이 사랑하는 섭리 신부이며, 나의 첫 신부인 선생을 통해 30년 넘게 펼쳐 온 역사로다. 너희는 깊이 알고 깨달아야 한다.

과거에 그가 행했던 일거수 일투족은 내가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했던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정말 그와 동행함을 모른 채 그저 맹목적으로 따를 뿐이로다.

하지만 나의 사랑 너희 선생이 이 역사를 떠나가고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특히 섭리인의 죄를 위해 너희들이 나의 마지막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의연하게 결단하고 이 고난의 길을 가고 나서야 너희가 진정 깨닫기 시작하였노라.

이 성경본문처럼 그가 하늘나라 성(城)인 천국을 사모하기에 천국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엄청난 기세로 밀려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끌어안았노라.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여 천국, 신부급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시대 십자가를 짊어지고 흘

로 그 사망의 ‘골고다’산에 올랐노라.

섭리 신부들아. 정말 와 보아라. 정신으로 자기를 무장하여라.

완전한 마음과 정신을 만들어 제 1차 휴거와 제 2차 휴거를 이루어라.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절대 자포자기하며 약해지지 말거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진정 역사의 배가 곧 항구를 떠날 것이다.

곧 부두를 떠날 것이야. 내가 이 배안에서 너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도다. 나의 사랑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도다. 너희를 떠나려니 참으로 아쉽구나. 참다못해 눈물이 나온다. ‘너희가 정신으로 제대로 자신을 무장할 수 있을까?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하고 애간장 태우며 걱정이 되는구나.

나는 더 나은 그 분향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도다. 그곳은 바로 내가 온 곳이지. 나는 태초부터 그곳에서 내 사랑하는 신부들을 기다리고 있노라. 그곳은 바로 천국이요, 내가 거하는 곳이란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도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노라.

나의 신부들아.

반드시 이번 수련회 때는 천국 성령을 완전히 받고 철저히 고쳐서 돌아가거라. 성령을 받은 자는 더욱 큰 능력을 발하리라.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오직 사랑밖에 없노라. 오직 사랑, 오직 사랑, 오직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완전케 해 주고, 우리가 완전히 일체되게끔 해주며, 영원한 연인이 되게 해주고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게 해 주노라.

이 성지땅 월명동 ‘자연성전’은 나의 육신을 상징하며 하늘의 그 나라를 상징하기도 한단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너희는 이곳이 만들어진 과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특히 내가 어떻게 선생을 통해 이곳을 만들었는지 알아야만 내가 어떻게 그를 인도하여 지상천국을 이루었는지 비로소 알게 된다.

그리고 선생이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어떻게 나에게 인도되어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

그의 생애는 바로 내가 이 시대 사람들을 인도하는 축소판이란다.

너희는 반드시 깊이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가야만 섭리에 대해 절대적인 역사관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역사는 나와 그가 서로 사랑을 나눈 이야기이기에 너희는 그에 관한 이야기와 그 뒤에서 역사한 나에 대해 깨달아야 한다.

자연성전 ‘월명동’은 너희의 고향이기도 하고 더 나은 분향을 상징하기도 한단다. 와 보라! 나의 신부들아! 와 보라!

너희도 이 위대하고 웅장하고 신비하며 아름다운 섭리역사 길을 가고 있으니 이 대열에서 벗어나지 말고 계속 전진하여라.

섭리인들이여,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내 아버지의 창대한 사랑의 섭리 역사를 정녕코 이룰 수 있노라.

내가 마지막으로 해 주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다.

“와 보라!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라! 그 가운데 참여하여라. 이 역사가운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어라.

나의 영원한 신부가 되어라! 내가 충만한 기쁨으로 너희를 기다리고 있노라.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해.”

영원한 진리와 사랑의 존재인 나 신랑 예수가

저: “ 주님,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영광이 느껴져 온 몸이 찌릿찌릿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 “ 너희 선생이 너희들에게 몇 마디 하게 하자. 선생이 너희를 보고 싶어 한다.”

선생님: “ 나 선생이에요. 사랑해요. 나의 제자들. 한사람, 한사람 이름을 살포시 불러주고 싶습니다. 각 사람들의 상기된 얼굴을 보고 있어요. 내 말을 듣는 것은 나 본인을 본 것과 진배없으니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이렇게 만나는 건 기쁨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사방팔방에서 왔는데 열 몇 시간, 스물 몇 시간 비행기타고 온 자도 있어요. 기쁘고 즐겁게 지내길 바랍니다.

이곳을(월명동을 말함) 여러분의 해외 별장으로 삼아요. 그리고 말씀도 잘 듣고 여기에서 찬양하며 성삼위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요. 이곳은 주 예수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곳으로 이곳에서 주님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병을 낫게 하는 약수도 있으니 아픈 자는 이 물을 마시고 돌아가도록 하세요.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깊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돌아가야 해요. 주님이 깨달을 것은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과 대화까지 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처음 월명동 온 자들 손들어 봐요.

(선생님께서 처음 온 자들을 일일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해요. 첫 사랑 잊지 말아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자기 정신과 마음을 고쳐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지도자들 수고 많았어요. 양떼들을 잘 이끌도록 하세요. 지도자들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 돌아가요. 전도하는 자들, 관리하는 자들, 열심히 뛰는 자들 모두 다 정신 무장해야 해요. 모두 다 성령 받고 가야 해요.

사랑해요. 빠이 빠이 ”